

철학과의 교육현황과 발전방안의 모색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우리나라 대학에서 철학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 1920년대 부터이지만 그것은 주로 교양교육의 차원에서였다. 해방 이후(1946년) 3개 대학에 철학과가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철학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1950년대에 13개의 철학과가 생겨났고, 60년대에 5개(성균관대의 동양철학과, 한국철학과 포함), 70년대에 6개, 80년대에 17개, 90년대에 2개의 철학과가 생겨났다. 1925년에 개설된 경성제대(현 서울대) 철학과를 포함하면 현재 전국 대학에 47개의 철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1년에 이들 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약 1,600여명 가량 된다(박순영, “대학철학교육의 반성과 과제”, 1995년 철학연구회 춘계 발표논문집, 75~76쪽 참조).

47개 대학 철학과의 교육현황을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고 필자가 길지 않은 철학과

교수 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바를 기초로 하여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철학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철학과가 관장하고 있는 교양 과목의 측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학과의 교육현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교양철학으로서의 철학교육과 철학과의 전공교육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또한 대학의 계열화나 학과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구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1. 교양 철학교육의 문제

우선 교양철학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에 관하여는 몇 차례 연구가 된 일이 있다. 19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대학철학교육의 현황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199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위탁한 연구 ‘철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 덧붙여 최근 연세대의 박순영 교수가 ‘철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위의 “대학철학교육의 반성과 과제”(이하 “반성과 과제”로 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 중 흥미로운 것은 철학과 철학개론 또는 교양철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철학이 교양필수로 되어있는데, ‘반성과 과제’에 따르면 교양철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철학이 필수과목이라는 부담, 강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강의 제목에서 얻은 기대와 강의내용과의 불일치, 수강자의 관심소재를 모르는 강사의 일방적인 주입-동기 부여의 부재, 난해한 지식의 열거-난해한 관념적인 유희-현학적인 용어의 나열, 강의에서 단순한 철학사의 나열과 철학자의 열거, 서양 철학에 대한 한국이라는 토양에서의 철학함에 대한 반성의 부재, 현대사회의 변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관심과의 연결 부재, 현실과의 연결고리의 문제-현재적인 관점에서 고전 철학사상과의 대화 부재”(“반성과 과제”, 89쪽) 등이다.

교양철학이 필수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개설된 교양 선택과목이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양철학은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되고 200~300명이 수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철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대단위 강의가 통용될 수 있는 과목은 강의에서 전달되는 정보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과목일 것이다. 수식을 사용하거나 부호나 약호를 많이 사용하는 이과계통의 과목들과는 달리 순전히 개념적 언어에 의존하여 강의하여야 하는 철학의 경우

대단위 강의는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 학생과 강사가 함께 사유의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모색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단위 강의에서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익명성을 핑계로 안일한 태도로 떠넘겨주는 밥을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다행히 강의내용과 철학의 내용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학함을 배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교양철학의 목표는 철학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쇼가 연출된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그 많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을 1~2시간 잡아놓기 위해서는 흥미유발을 시킬 수 있는 재미있고 감각적인 소재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재미있게 웃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피상적 대중연설이 되어버리고 만다.

철학은 어찌보면 사기극이나 쇼로 전략하기가 아주 좋은 학문이다. 표준적인 철학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위가 검증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사태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구체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의 경우, 해석에 따라 현상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어떤 내용을 강의받는가에 따라 현상조명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에는 강의가 이해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것으로 느껴진다. 철학이란 워낙 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학문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철학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기극은 번성해만 갈 것이다.

교양철학이 진정한 기초과목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다음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강사가 전체 학생들을 통괄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수업규모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강사가 학생들이 몇 회에 걸쳐 제출한 글들에 대한 평을 해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크기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남의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비판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의 단편적 글읽기 차원이나 소설 줄거리 파악하기식의 글읽기 차원을 벗어나 논의나 논증의 전체적 구조와 뼈대를 파악하고 논리적 연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철학적 사유방법에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 노출되는 방식은 구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구성한다. 다양한 철학적 사유방법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창문의 역할을 한다. 네모난 창으로 바라보이는 세계는 네모난 것이며 둥근 창으로 바라보이는 세계는 둥글 것이다. 여러 창으로 세계를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창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며 기존의 것을 깨고 새로운 창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럼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근본적 문제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적절하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논의를 구성하는 훈련이 가능해야 한다. 강사는 글에 대한 수정을 통해 학생들의 논의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려면 우선은 교육투자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능력을 갖춘 강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교양과목에 대한 시간강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며,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비전임 학위취득자들로 이루어진 시간

강사들은 낮은 강사료로 인해 과도한 수의 강의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당연히 강의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강의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힘들게 된다. 이들에게 대단위 강의에서 학생들의 글을 성의껏 읽어 평을 해주거나 수정을 지시하여 다시 읽어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전임교수가 강의를 맡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전공 철학교육의 문제

“반성과 과제”에 의하면 철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도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교과과정이 주로 전임교수들의 전공과 관련하여 짜여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불만족은 즉각 교수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불만족의 주요 이유는 교과목 개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이 물론 교육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배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철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기유발이나 지적 호기심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 처음 철학이 ‘철학’이란 이름으로 강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철학’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조어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철학을 강의했던 사람들은 주로 일본유학을 통해서 철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일찍부터 유럽으로 유학생을 보냈던 일본에서의 철학연구의 경향은 따라서 그대로 우리나라 철학연구의 경향을 결정지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 현대 유럽철학이나 독일 관념론 연구자를 양산한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철학과에서 교과목이 서양철학 중심으로 짜여지게 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철학의 전통이 신학문 전통과 급격한 단절을 이루게 된 배경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서양의 철학은 수학이나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수학과 과학을 받아들이는 한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제도만을 수용하고 그 정신이나 그 정신을 있게 한 철학적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철학과에서 서양철학을 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서양철학의 수용이 주체적으로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한 교수들조차 왜 서양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으며, 학생들은 더더구나 맥락 파악도 안 된 채 단편적인 철학적 지식만을 습득한 채로 졸업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이나 문제의식과 연관되지 않는 한 철학은 단지 고답적인 학문으로서 표피적 철학기술이나 지식만이 주입될 뿐 동기유발이나 지적 호기심 자극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서양철학의 수용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적 창조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철학적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지 못함을 말한다. 많은 교수들이 자신이 몇 년간의 유학생활을 통해 전공한 철학자나 철학영역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한국의 철학계는 구미 철학의 구멍가게식 대리점을 차려놓은 형상으로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과 내에서 교과 과정을 짜는 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경직된 영역 고수로 인하여 철학과 학부 전공이 지나치게 세분화 또는 전문화되는 것이 그 예이다. 전공과목의 세분화, 전문화는 학부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무 고매하고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만 갖게 할

뿐 철학이 해볼 만한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철학교수들은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실질을 확보하려면 대학교육과 초·중등학교의 교육 사이에 발전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단편적 지식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중에서 철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철학과에 진학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요구하는 사유방식이나 문제 접근 방식에 적응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육이 요구하는 탄력적 사고와 다양한 사고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들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생경한 느낌을 가질 것인가는 우리가 처음 외국에 나가서 경험하는 생경함이나 당혹감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 안에, 역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마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 또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을 것이다.

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동양철학에 대한 요구가 높고 동양철학 강의를 비교적 높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들에게 친숙하고 이미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철학 강의도 우리 문화 안의 일반적 문제의식의 맥락 안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면 철학이 멀게만 느껴지는 일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적으로 철학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의 몫이며, 새로운 철학적 전망이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점차로 대중교육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세계는 전문화되어가고 보다는 세분화되어가고 있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대학 학부교육을 통해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학원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이상 대학은 일정 정도 현실로부터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진리탐구라는 학문적 이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의 교육은 전문화된 사회에 나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을 인간적 가치와 인간 삶의 보편적 이상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 교육에서 지나친 전공 구분이나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통합적 성격과 전체적 성격이 강조된 과목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별 철학자를 명기한 과목의 수는 되도록 제한을 두고 철학사조나 경향을 중심으로 하거나 철학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목을 늘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통괄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새로운 시도일 것이다.

한 학과 내의 전공 영역 사이의 넘나들이 보다 자유로워야 하듯이 학과와 학과 사이의 넘나들이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학부 차원에서는 그렇다. 철학이라는 것이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처음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며, 어떤 학문이든 인간 삶의 전체적 맥락과 분리될 수가 없다. 철학을 하면서 문학과 역사와 과학과 예술에는 무지해도 좋다는 암시를 우리의 대학 학제는 암암리에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문이든 문화 안의 다른 영역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하면서 문학·과학·역사에; 문학·과학·역사를 하면서 철학에 무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고려를 할 때 ‘철학과 과학’, ‘철학과 문학’ 등의 학제간 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과와 학과 사이의 불필요하게 높은 장벽의 제거는 앞으로 대학 편제가 변화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부의 계열화나 예과 제도의 도입과 같은 것은 대학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

할 것이며 전공 개설 과목에서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전공에 요구되는 학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나, 부전공 제도의 강화와 같은 것도 학부 전공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철학의 사회적 적합성

“반성과 과제”에 따르면 철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상당히 낮다. 그것은 철학파를 진학하려는 학생의 부모나 친지의 반대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의 주된 이유가 취직의 전망이 나빠서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철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철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학문이 못된다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한 학년에 40~50명 정도의 학부 입학생의 비율은 그 모든 학생이 철학을 전공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너무 많은 숫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철학을 전공하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전문화된 철학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하는 쪽에서나 교육을 받는 쪽에서나 모두 낭비가 될 것이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장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현실적 진로 문제에 무심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철학이 사회적 적합성에 있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철학은 그 근본성과 기초적 성격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일을 하든 유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 쓰는 능력, 문제를 총체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조망하는 능력, 구체적 문제를 보다 일반적 문제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은 철학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능력들은 어떠한 일을 하

든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용성에 눈뜨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방법을 현실적 맥락과 접목시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학과 차원에서 교과목 개발을 통해서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철학과 여성’, ‘철학과 법’, ‘철학과 경제’, ‘철학과 매스컴’, ‘철학과 전자게임’, ‘철학과 광고’ 등 많은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 현상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게 하고, 대안적 방안을 구성해 보게 함으로써 철학의 현실적 적합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변화될 교육환경에서 철학과 학부교육은 고급 교양교육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전공교육은 대학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원에서의 철학교육은 철학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며, 이 경우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함으로써

서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심리적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고 철학과 교육의 공허함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철학과 학부교육은 학생들에게 철학 혹은 다른 학문을 전공할 수 있는 바탕, 즉 철학적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유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세부적 철학 지식을 갖고 있으며, 철학자들의 이론과 이름을 알고 있는가는 철학과 교육의 부수적 결과일 뿐 철학과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김혜숙/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예술과 사상』,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등이 있고, “정합성과 인식적 이상”, “선험적 방법론의 성과와 그 한계”,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